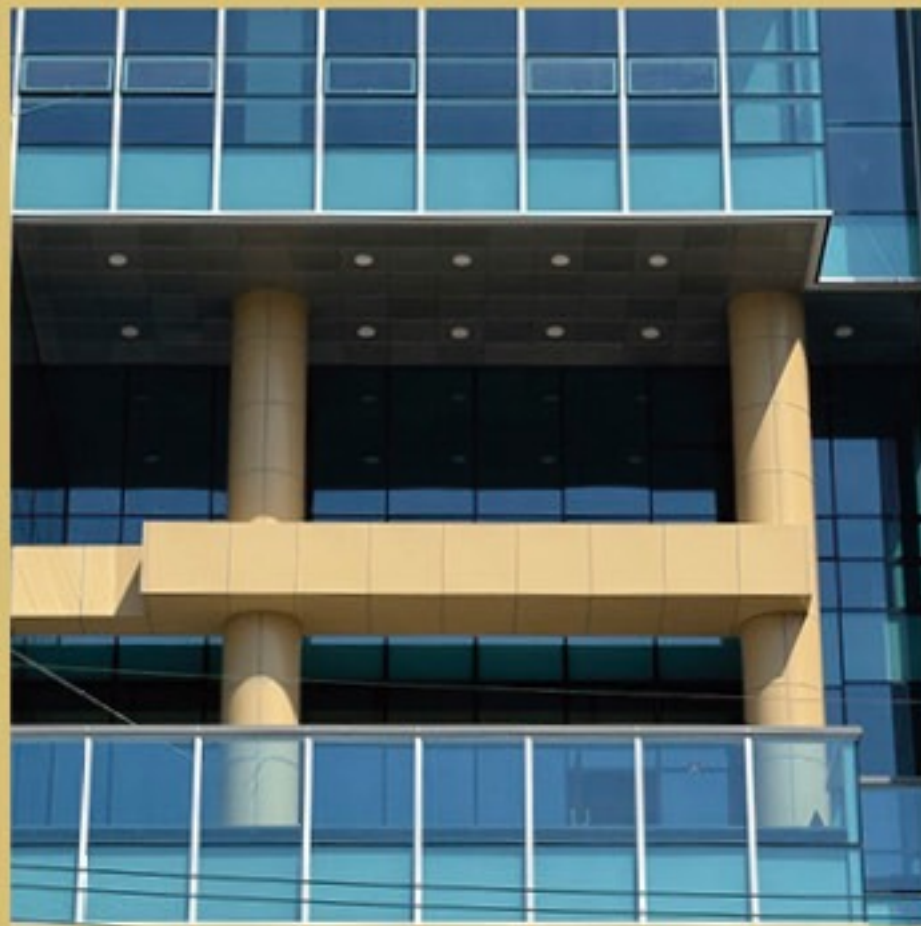




SARANG

시론 02

좋은 건축 실현을 위한 제언

건축사 인터뷰 03

비어 있음의 가능성, 아름다움의 여백을 짓다 _ 문지숙 건축사 / 미공간 건축사사무소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남건축사회,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전라남도건축사회, 제1회 교육위원회 개최

전북 지역 뉴스 06-07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추원호 건축사, '첫 시집 시(詩)로 건축을 짓다' 출판기념회 열려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 국토교통부 고위정책과정 한옥교육 성료

광주 지역 뉴스 08-09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업무협약식 체결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강필서 회장·이영문 건축사 위촉
광주 광산구청,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실질적 성과 거둬

종합 10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건축사를 위한 '사례로 보는 저작권 안내서' 발간
법령정보
건축사님들 실무 관련 법령 알아가요~

설계공모 11

미력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목담과 한옥
한 편의 시 _ 독방
한 장의 사진 _ 전남 선도 수선화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5.18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좋은 건축 실현을 위한 제언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학교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 2021-현재 군산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복지회장
- 2009-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 2014-2016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복지회장
- 2024-현재 전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23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본상

좋은 건축은 무엇인가?

시에게 물어보았더니, 좋은 건축은 기능적이고 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성,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구조적 안전성, 맥락적 지역성, 사회적 공공성, 창의적 혁신성 등을 들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서울올림픽 때 나를 찾아온 외국 건축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이름있는 현대건축을 둘러본 때의 지적이 기억난다. 디자인은 멋진데 디테일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념은 좋으나 기술적으로 부족하여 건축물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좋은 건축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고 본다.

치유 환경(healing environment)은 무엇인가?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외롭고 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치유 환경은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회복을 도와주는 공간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즉 건축에서 중요 요소로는 자연경관,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의 자연적 요소, 조명, 소리, 냄새 등의 감각적 요소, 프라이버시 보호, 색채계획 등 심리적 요소, 공동체 공간, 개방 공간 등 사회적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스트레스가 과증함을 느끼며 산다.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건조 환경은 반드시 치유 환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건축공간에 자연적 요소의 도입은 최소한의 치유 환경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 스웨덴 병원 건축 답사 시 설명을 들었는데, 그들이 추구한 최고의 병실은 고도화된 설비의 공간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지면, 가까이에서 흐르는 시냇물, 화초가 풍부한 정원, 그리고 맑은 하늘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즉 건축공간 가까이에서 녹색(green)과 청색(blue)의 자연적 요소가 도입되어, 사람이 직접 이를 눈과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조망이 최고의 치유 환경이라고 간주한다.

주거로서 고밀도/고층 아파트는 어떻게?

인간의 3가지 기본욕구로 의식주를 꼽는다. 주변을 보면 옷을 입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점이 건축 전문가로서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고밀도/고층 아파트에 대하여 걱정이 앞선다. 고밀도/고층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생리적 문제, 재난에 취약한 점, 사회적 불균형 문제, 도시 경관과 환경문제, 장기적 유지 관리 문제 등이 지적된다. 과연 우리의 고층 아파트가 편안한 주거 환경이 되고 여기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고층 아파트가 출산율이 낮다는 조사도 있다. 또한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고층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현재와 같은 재건축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

이제는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주택 문제를 양적인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질적으로 향상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즉 집을 경제적 상품으로만 보기보다는 본연의 거주성을 회복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 여전히 국가적인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들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양적인 확대만을 제시한다.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복지 차원이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의 치유 환경에 대한 최소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택은 거주자를 위하여 치유 환경의 요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과연 고밀도/고층 아파트에서 어떻게 치유 환경이 가능할까? 아파트 동수를 줄여서 주민의 조망을 위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내화한 발코니를 외부공간으로 되돌리고 여기에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최소의 치유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건축의 프로세스와 공사 계약 방식

공공건축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의 시작인 기획이 공공건축의 품질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기획은 매우 중요하나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 기획 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거나 "건축기획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외부 전문가가 작성하기도 한다. 몇 가지 후속 절차를 거쳐서 기획 업무는 마무리된다.

필자가 지역의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기획 업무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낮은 공용 면적비와 부족한 건축 공사비(이에 따라 산정되는 낮은 설계비)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면적 프로그램(space program)의 완결성 미비와 추정 공사비 부족이 핵심이고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내외 우수한 건축사례 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공용면적을 포함한 합리적인 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최근 완공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지향적인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 건축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수준이나, 건축을 실행하는 우리 건축 분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건축계는 각 전문 분야별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의 시작인 기획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어, 면적 프로그램과 공사비 단가 적용 등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잘못 추정된 공사비는 설계비가 낮게 책정되고,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부실한 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방식과 더불어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답사했던 유럽의 병원건축 신축 현장에서 단가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다. 즉 건축주, 시공사, 감리사 등 관계자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실행 자료를 공유하면서, 오로지 최고의 품질을 얻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한다. 그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추구하고 있다.

맺은 말

좋은 건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좋은 건축은 여러 요소가 균형적으로 상향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건축에서 치유 환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현재 만연해 있는 고밀도/고층 아파트의 문제점과 치유 환경을 위한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고, 공공건축에 있어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 향상 방안에서 기획 업무의 중요성과 공사 계약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에 있어서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의 전 과정에 대하여 사후평가제도를 통하여 결과를 다음 프로젝트에 환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중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라00144
간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비어 있음의 가능성, 아름다움의 여백을 짓다

- 미공간 건축사사무소 문지숙 건축사와의 만남

건축문화사랑 3면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문지숙 건축사(전남)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며 가장 자주 했던 건, 합격 후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합격하고 나니, 현실적인 고민들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설렘만큼 준비하고 결정해야 할 것도 많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다 보니 정신없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개소와 함께 남편과 공동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축사다 보니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다툼도 생기곤 합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없다는 건 장점이자 어려움이지만, 함께 부딪히고 조율해가며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축 경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고 서툰 사무소지만, 하나씩 채워가며 저희만의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거지 궁금합니다.

'미공간'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움(美)'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외형적으로 멋진 건축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에 편안하게 스며들고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진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비어 있음(未空間)'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 사용자의 삶에 따라 다르게 완성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의미처럼, 저희 사무소도 정해진 틀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한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멋지고 특별한 건물보다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오래도록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미공간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아름다움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바꾸는 작은 공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공간들에도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사람과 공간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건축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언어보다, 마음이 전해지는 건축을 오래도록 꿈꾸고 있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건축사의 일이 단순히 설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뿐 아니라 각종 행정 서류, 인허가 절차, 관계자들과의 조율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으로 건축사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은 지자체마다 기준이나 해석이 조금씩 달라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된다면 실무자들이 일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젊은 건축사들이 사무소를 열고 자리를 잡아가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열정이나 철학이 있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실제로 기회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된다면 건축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Q. 설계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설계 과정 중 지금도 마음에 남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한 노부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집이라며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시다 보니, 처음에는 솔직히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정신적으로도 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몇 평짜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오랜 시간과 마음이 담길 그릇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곱미터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간이란 결국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길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미공간이라는 이름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들에게 편안한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건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평소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귀찮을 법도 한데 늘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후배, 동료 건축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이자 기꺼이 물어보고,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동료가 되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농기게임대사업소 운남분소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단독주택



미공간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내부



인중헌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중헌
전남 광양시 눈소3길 49-4 / Tel. 061-793-8503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44-6번지 / 대지면적 : 331.40㎡ / 건축면적 : 197.82㎡ / 연면적 : 197.82㎡ / 건폐율 : 59.26%
용적률 : 59.26%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일반철골조 / 주요 마감 : 통브릭 타일, 스타코플렉스, 징크

일반적인 임대 공간 계획 시 도로에 동일한 조건으로 배치하지만, 금번 계획에서는 임대 공간은 전면 가로변에 최대한 노출하고, 필요에 의해 방문되어지는 건축사사무소를 배면으로 배치하여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접근로를 제공하였다.

전면 임대공간과 배면 건축사사무소의 지붕을 엇갈리게 배치하고, 외장마감을 다르게 계획하였다. 배면 다락의 창문은 전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건축적 장치가 되길 바랬다.

전면 마당은 가로변에, 배면마당은 그들과 반려견이 자연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제공하였다. 큰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자연과 그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장을 배경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 실내 공간을 계획하였다.



전남건축사회,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 업무협약 체결 통합의료서비스기반 치유프로그램 감면 이용 혜택 등...



(사진 = 전남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는 지난달 전라남도, 장흥군, 국립나주병원, 원광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와 통합의료서비스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 감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들은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심신 회복 프로그램

을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한의학, 의학, 보완대체요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령, 성별, 단체 특성에 따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치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 및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 참여 기대...

전라남도가 건축정책 수립과 공공건축 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할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오는 5월 28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전라남도 건축기본 조례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

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22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설계·시공·재생·경관·녹색건축 등) 16명 △도시계획(도시·교통·환경 등) 3명 △문화(디자인·언론·사회단체 등) 3명이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해당 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 보유자,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 종사자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다.

심사는 서류전형으로 진행되며, 성별 비율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을 지향한다. 지원을 원하는 전문가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메일(qktkfl@korea.kr) 또는 방문·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전화(061-286-7741)로 확인해야 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건축정책위원회는 도내 건축정책 방향성과 공공건축 기획에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제1회 교육위원회 개최

2025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에 대해 논의...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의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최신 건축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 도입, 회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 구례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특강 프로그램 성료

도시재생과 인문을 주제로 군민들 높은 관심 보여...

전남 구례군은 지난달 24일 구례읍 통합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4주간 매주 1회씩 진행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특강 프로그램 '구만사(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만사는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과 인문'을 주제로 1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에는 전남건축사회 정종민 건축사의 '타 지역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적용 가능성 알아보기', 장하수 박사의 '매력적인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강보선 박사의 '동구 인문학당 사례로 오래된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등으로 구성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특강이 구례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공동체 가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구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 1차 회의 개최

한옥의 문화적 가치 조명과 행사 정체성 확립 위한 본격 준비 돌입

전남 영암군이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군청에서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조직위 부위원장 선출 및 전문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비엔날레의 방향성과 행사 구성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준봉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첫 개최된 한옥문화비엔날레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가을 국화축제 기간에 맞춰 군서면 구림마을 일원에서 연속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를 연이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은 한옥 관련 문화 콘텐츠를 조명하고,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시급한 과제

들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봉수 삼진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한옥을 짓기만 하는 시기는 지났고,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진하 별터 건축사사무소 대표도 "한옥 구조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옥의 성장과정을 비엔날레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2차 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구성, 참여 작가·단체 선정, 콘텐츠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전통과 현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이교석 건축가 초청해 특강 개최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 비전 구체화...

순천시는 지난달 도시 공간정책에 창의성과 국제적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네덜란드 건축 스튜디오 MVRDV의 부소장인 이교석 건축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교석 건축가는 "현대 도시는 갈등과 위기를 흡수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며, "건축은 정책의 언어를 설계로 바꾸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도시 공간에 대한 내부 인식의 전환과 공무원들의 정책 실행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건축 트렌드를 시정 운영에 반영해, '정원도시 순천'의 미래형 도시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건축가는 네덜란드 마켓홀, 프랑스 리옹의 일로트 쿼리, 한국 탄천 수변공원 '더 위브(The Weave)' 등 세계적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56명 (2025. 5. 13. 기준)

•입회

- 이대운 건축사 / 그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0, 503층
- 나종희 건축사 / 다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연향변영1길 13

•퇴회

- 임석규 건축사 / 가람 건축사사무소
- 신재관 건축사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변경(군무체)

- 이대연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다비드 / 전남 목포시 남악1로 56, 601호

•변경(소재지)

- 조연준 건축사 / 창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02
- 임성진 건축사 / 감람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10-1, 101호
- 최희정 건축사 / 지온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안장산로 17-7, 3층

•결혼

- 박계옥 건축사 / 세움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5년 5월 3일(토)

•부고

- 백종민 건축사 / 라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4월 21일(월)
- 최득봉 건축사 / (주)에아 종합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4월 29일(화)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릅게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평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장수역사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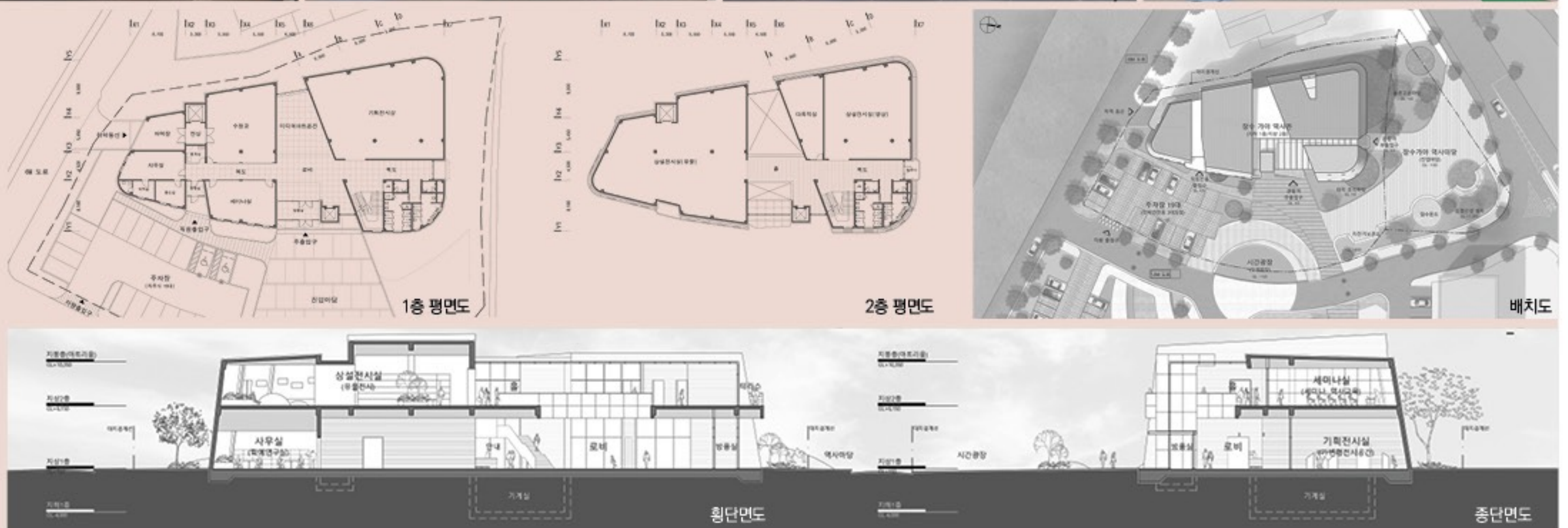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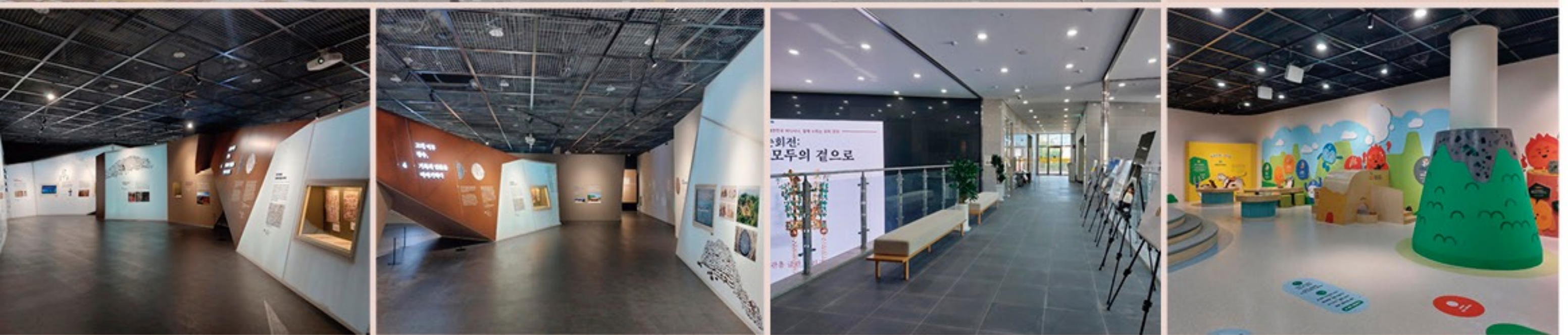
김병수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로 15 / Tel. 063-653-5989



대지위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27-30 / 대지면적 : 2,970㎡ / 건축면적 : 1,055.6㎡ / 연면적 : 1,995.37㎡ / 건폐율 : 35.54%
용적률 : 62.4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점토벽돌, 금속판넬, 로이복층유리

1층은 이용자 중심의 기능별 조닝으로 로비 및 미디어아트 공간을 중심으로 관리구역과 전시영역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를 중점으로 하였다. 로비와 인접한 미디어아트 공간은 장수가야의 역사와 유물을 시각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계획하였고, 수장고 공간은 유물들의 보관과 보안이 원활하도록 설계하였고, 방문객의 자유로운 관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개방형 수장고를 구성하여 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2층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유물전시실과 영상전시실을 배치하여 연속된 전시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전시실은 모두 대공간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시를 연출할 수 있게 하였다. 학예연구실은 남서측에 배치하여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져 실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전시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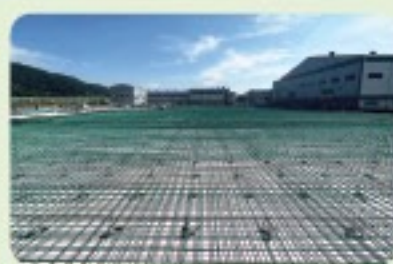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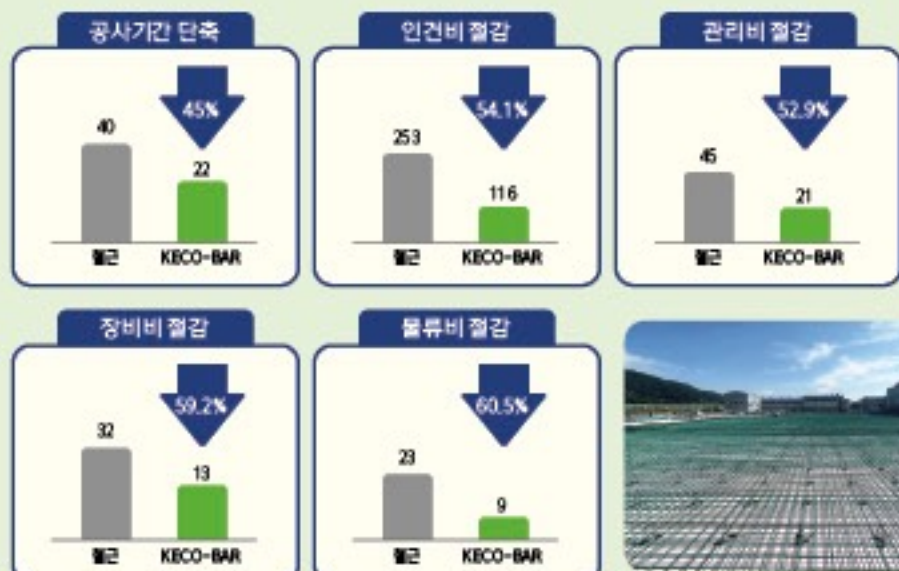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연약지반 (주)파나시아 공장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 부 목포 010-3638-1882
동 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전북도 내 건축사, 기술사 관련 실무자, 가족 등 600여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5월 10일(토) 전주비전대학교 운동장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체육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와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주최·주관하여,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도내 14개 시군 및 건축사회가 함께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건축인과 그 가족 등 총 630여명이 참여해 단결과 교류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체육대회는 전북도청·전북개발공사·시군 연합팀(A팀), 전주·완주 연합팀(B팀), 건축사회팀(C팀)으로 나뉘어 축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단체경기와 함께 가족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경기 내내 뜨거운 응원과 환호 속에서 팀워크를 발휘하며, 웃음과 땀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도내 건축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새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열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축발전을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육대회는 이를 단합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건축인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원호 건축사, ‘첫 시집 시(詩)로 건축을 짓다’ 출판기념회 열려

건축 실무 과정 떠오른 생각을 시로 기록해...



(사진 = 추원호 건축사 제공)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첫 시집 ‘시(詩)로 건축을 짓다’를 출간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삼만서예가선양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100인 시화전 시집’ 출간 기념 행사도 함께 진행된 가운데, 추원호 건축사의 가족·문인·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추원호 건축사는 건축 실무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을 시로 기록해왔다. 그는 “현장에서 마주한 장면들을 글로 정리해왔다”며 “시집을 펴내기까지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을 바라보며 적은 글이 시가 됐고, 이 글들이 다른 이에게도 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시집에는 건축사로서의 경험과 종교적 성찰이 시로 담겼다. 건축이라는 직업을 통해 얻은 시적 통찰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추원호 건축사는 대한시문학협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역임, 현재 창암 이삼만 선생 선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시집에는 그동안 써온 시 228편이 수록됐다.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 국토교통부 고위정책과정 한옥교육 성료

전국 고위직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교육 실시...



(사진 = 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은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고위직 공무원 정책과정인 ‘한옥알기과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진행됐으며, 한옥에 대한 이론교육은 물론, 실습 및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전라북도 일대의 대표적인 한옥을 직접 답사하며 우리 전통건축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과정 중 진행된 선운사 템플스테이의 ‘명상교육’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을 유치한 남해경 전북대학교 명예교수(한옥건축사업단장)는 “전북대

학교와 지역의 우수한 한옥기술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과 행사를 유치해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은 대한건축학회, 농촌건축학회, 국토교통부 한옥정책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한옥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북도도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한옥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특별간담회 개최

지역 건설업계 애로사항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



(사진 =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등과 함께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화생 및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발주시 조달청 의뢰 방식보다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도록 해, 지역 가점제도를 적용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 정책 발굴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 ‘2040년 정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방안과 활성화 정책 방향 제시...

정읍시가 지역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40 정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제정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신태인읍 우령리·연정리, 태인면 오봉리, 입암면 천원리 등 총 4개소, 약 43만 3,233㎡ 규모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용역이 진행됐으며,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을 산업기반이 열악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산업정비형’ 공업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실행 방향도 설정했으며, 건축물 밀도 계획, 지원기반시설 확충, 환경관리 전략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포함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각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며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정읍이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환경을 수용·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40 정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30명 (2025. 5. 13. 기준)

• 변경(소재지)

- 전영배 건축사 / 대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동길 17-45

• 결혼

- 이진희 건축사 / 세광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4월 12일(토)

- 허성제 건축사 / 화이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4월 19일(토)

• 부고

- 이길환 건축사 /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 이엔지 / 장모상 - 2025년 4월 27일(일)

- 임채엽 건축사 / 태권비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5월 4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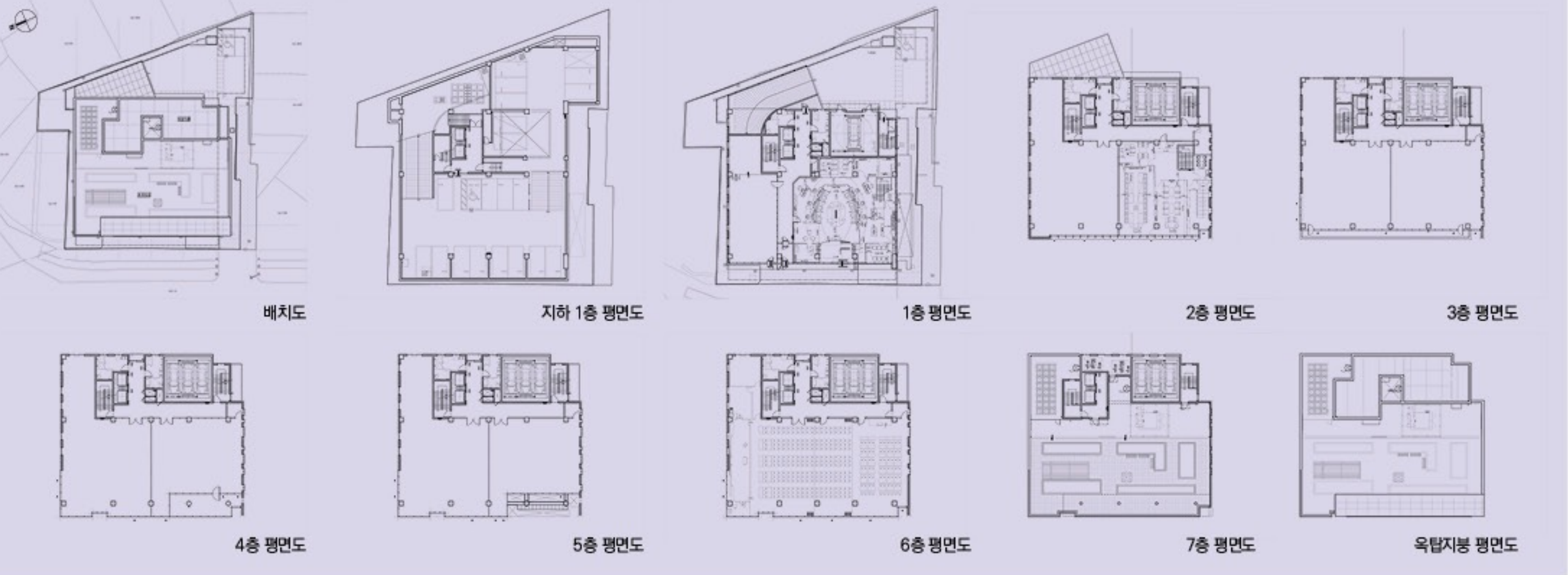
- 이응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건 / 부친상 - 2025년 5월 4일(일)

동광주새마을금고

심상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SIM
광주 남구 통선로84번길 3, 306호 / Tel. 062-676-3488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87, 2층 / Tel. 062-956-338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22-10번지 / 대지면적 : 1,247.40㎡ / 건축면적 : 696.48㎡ / 연면적 : 4,614.60㎡ / 건폐율 : 55.83%
용적률 : 294.73%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주용도 :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5년도 | 5월 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2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 (2) 실무교육 계획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인정 시간	교육비	인원
5월 27일(화) 14:00~16:00	전문 교육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이호진 센터장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광주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2시간	30,000원	150명
5월 27일(화) 16:00~18:00	전문 교육	건축·해체공사감리의 현장관리실무	김선희 전문관 광주 서구청		2시간	30,000원	150명

- (3) 교육대상 : 건축사
- (4) 신청기간 : 5월 23일(금)까지
- (5) 출석인정
 - 매 과목당 교육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출석체크
 -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장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7)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배너 위에 "수강신청" 클릭 ⇒ 실무교육 선택 ⇒ 과목명 클릭 후 결제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업무협약식 체결 녹색건축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4월 24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녹색건축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강상구 상무, 광주건축사회 정명환·박상규 부회장,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남택유·이동건 본부장, 주정경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물 관련 인증·평가에 관한 정보공유와 교육지원, ▲그린리모델링 등 관련 연구협력,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 양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인증업무관련 교육,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강필서 회장·이영문 건축사 위촉 사건에 대한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 반영...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과 이영문 건축사가 지난달 30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및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를 보장하고, 검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다.

강필서 회장과 이영문 건축사는 지역 건축 발전에 기여해온 전문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익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주고등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과 검찰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검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가 검찰 정책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청,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실질적 성과 거둬 건축법령, 행정절차 안내를 넘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사진 =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청은 올해 초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에 앞서, 단순한 건축법령 안내를 넘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제공을 위해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건축 관련 법제도 및 행정 절차로 인한 주민 불이익이나 고충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산단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현장 중심의 상담을 실시한 결과, 지난 달 4월말 기준 총 70건의 건축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그중 위반 건축물 23건을 양성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행정절차 누락 등으로 위법 상태에 놓인 건축물 중 합법화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한 해결을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센터 운영의 핵심은 공무원과 건축사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

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와 더불어 건축법령 준수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주민들의 건축 관련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센터 운영을 꾸준히 이어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5층 건축과에서 운영되며,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한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2025 리버시티2 도시·건축 디자인 워크숍 개최 지역 내 건축학전공 학생들이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교류...



(사진 = 광주대 제공)

광주대학교 교내 호심관 소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연합프로젝트인 2025 ‘리버시티 2 (River+City)’ 건축도시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김기준)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건축학전공 학생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건축과 도시의 미래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년째 열리는 워크숍은 지난해 주제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단계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수변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및 건축디자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광주대 건축학전공(전공주임 최재영)은 2년 연속 1차 워크숍 호스트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으며, 광주대 4학년 학생 21명을 포함 전남대 건축도시설계전공,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여수 캠퍼스) 학생 등 총 6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학기 동안, 도심부 영산강 주변과 수변공간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팀별 스터디 작업을 통해, 학교별로 다양한 범위의 건축설계와 도시설계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물은 10월께 열릴 광주-아시아 건축대전 기획전시회에 소개될 예정이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2명 (2025. 5. 13. 기준)

•전입

- 문고리 건축사 / 문고리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시청로 41, 716호

•변경(근무처)

- 오현진 건축사 / 현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독립로226번길 13-2, 2층 201호

- 김인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밀 / 광주 동구 동계로13번길 20

- 송지영 건축사 / 고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우치로 102, 4층

•결혼

- 김용래 건축사 / 빛고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5월 24일(토)

- 김정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송강 / 아들 결혼 - 2025년 5월 17일(토)

- 한수빈 건축사 / 프롬에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5년 5월 17일(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건축사를 위한 '사례로 보는 저작권 안내서' 발간

건축사의 창작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예쁜 카페·펜션, 특이한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어요. 건축사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외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건축주도 건축사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건축사를 위한 '사례로 보는 저작권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건축사가 설계 과정에서 자신이 창작한 성과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또 어떤 계약 조항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양도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허락 없이 베끼면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개념 ▲저작자의 권리 ▲건축사의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 ▲공정 이용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이 정리돼 있다.

특히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자가 가지나요?’, ‘건축주가 저작권자가 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건축설계 계약에 따른 저작권 쟁점을 실제 상황에 비춰 짚어준다. 실무 계약 단계에서 건축사가 저작권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안내서가 건축사의 창작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법/령/정/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 제35449호, 공포 2025. 4. 15. / 시행 2025. 7. 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하는 해당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작품 모집 안내

- 출품자격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 출 품 료 : 없음
- 모집기간 : 상시
- 작품구분 : 준공 작품
- 소개지면 : 광주·전남·전북 지역 지면 회원작품 소개코너
- 제출자료 : 작품사진 JPG 파일 및 치수선 없는 도면 PDF, 설계개요 및 개념 한글파일, PDF 등
- 제출방법 : 광주건축사회 이메일(gjkira@empas.com)
- 문 의 : 건축문화사랑 신문 담당자 Tel. 062-521-0026



건축사님들 실무 관련 법령 알아가요~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2024. 7. 10.)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 구조물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곳이기에 체계적인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품질시험 결과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 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에 입력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 제15항에 따른 CSI에 입력하여야 한다.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단열재 등 불법 및 불량 자재 사용 주의보

최근 국내에서 제조되는 단열재 일부 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진행된 시판품 조사 및 현장 조사에서 단열 성능 미달 등의 결함으로 한국산업표준(KS)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에 따르면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품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방사 단열재 및 진공 단열재 등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단열재의 경우 발주자나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등)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레미콘 정기점검 실시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레미콘 공장 운전실에 출력된 자동계량기록지 등 레미콘 생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운반차 번호 2. 생산·도착시각 및 타설완료 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밖에 지정사항 등

미력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주거형 원론 신설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수요가 있음에도 현재 근로자 복지를 위한 문화·주거·복지·편의시설이 없어 근로 복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심사위원 : 이경일(원건축), 박홍근(포유건축), 신영은(건축사람), 염대봉(조선대), 이기욱(건축창), 봉환성(건축에이아이), 장지숙(건축해람)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954-1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5,597.70㎡
- 건축면적 : 1,393.84㎡
- 연 면 적 : 1,293.98㎡
- 규 모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외부마감 : 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고밀도 목재패널 등

당선작

임용훈 건축사 / 키즈 건축사사무소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목탑과 한옥

김영일 / 청아출판사 / 2025. 03. 18.

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건, 바람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햇살이 슬며시 어깨에 기대올 때쯤이다. 이런 계절에는 자연스레 어딘가를 걷고 싶고, 오래된 것을 보고 싶어진다. 마침 읽게 된 <목탑과 한옥>이라는 책은, 그런 봄날의 기분과 묘하게 잘 어울렸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느끼는 마음의 온기, 그리고 한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봄 햇살처럼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목탑과 한옥>이라는 책은 충청북도 진천군 보련산 자락에 자리한 보탑사, 그리고 그 중심에 세워진 3층 목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목탑은 겉보기엔 3층이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의 전통 양식을 따라 내부에 '암층'을 두어 실제로는 5층 구조로 지어졌다. 쇠못 하나 없이 나무와 나무를 짜 맞추는 전통 방식으로, 42.73미터 높이의 목조 건축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감탄이 절로 나온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건축이 단지 기술적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장인들의 철학과 열정, 수십 년간 쌓아온 손끝의 감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점이다. 저자 김영일은 무령왕릉을 발견한 문화재 발굴가이자, 평생을 전통 한옥 보수와 신축에 바친 장인이다. 그가 기술자로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보탑사 목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옥의 진수'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편수, 단청화사, 석공, 조각장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인들이 함께 참여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쌓아온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상 깊었다. 마치 이 책이 건축을 넘어,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탑처럼 느껴졌다.

책의 2부에서는 전통 한옥을 짓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된다. 터를 잡고, 목재와 석재를 고르고, 구들을 놓고, 창호를 달고, 색을 입히는 모든 과정 속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다. 저자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단지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한옥'이 단지 옛집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집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전통 건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당연히 추천하고 싶지만, 그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온전히 사랑해 본 사람', 혹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옥을 공부하거나 실제로 지어보고 싶은 이들, 장인의 삶을 동경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이다.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봄날, 경주나 진천처럼 전통의 시간이 깃든 곳을 찾아 이 책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서 바람을 느끼며, <목탑과 한옥> 속 장인들의 손길을 떠올린다면, 이 계절이 더 깊고 풍요롭게 느껴질 것이다.



한 편의 시 _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전북)



독방

미움도 가득고, 슬픔도 가득고, 사랑도 가득고
머릿속 여러개의 독방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들이
한방씩 차지하고 떠돌아댄다.
밖으로 내보내면 좀 조용해 질는지
비웃진않고 채우기만 반복한다.
서로 마주치지 못하게....

한 장의 사진 _ 정범수 건축사 作 / 남북 건축사사무소(전북)



전남 신안 선도 수선화 2024년 3월 31일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